

배포 일시	2023. 1. 16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정희 (044-201-3804)
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조은경 (044-201-3786)
보도일시	2023년 1월 1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고향 가는 길,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

- '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(1.20~1.24)' 시행 -

- [통행수단] 승용차(91.7%), 버스(3.8%), 철도(3.0%) 순·총 2,648만 명하루 530만 명 이동
- [고속도로] 4일간(1.21.~1.24.)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·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
- [집중단속] 드론·암행순찰차 활용 교통법규 위반행위(음주·난폭운전 등) 집중 단속
- [방역관리]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(6개소, PCR 검사)
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오는 1월 20(금)일부터 1월 24일(화)까지 5일간을 “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”으로 정하고,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”을 수립·시행할 계획이다.

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 일상 회복으로 귀성·귀경·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,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, 지난 추석과 같이 ‘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’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.

< 설 연휴 이동 전망 >

한국교통연구원*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,648만 명,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 중 91.7%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.

* '23년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, 한국교통연구원(붙임 참고 1)

-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(432만 명/일)보다 22.7% 증가하며,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(2,594만 명)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(6일→5일)에도 2.1%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.
- 귀성은 설 전날(1.21, 토) 오전에, 귀경은 설 다음날(1.23, 월)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, 귀성·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(1.22, 일)과 설 다음날(1.23, 월)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〈 '23년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(한국교통연구원) 〉

- (일평균 이동) (1.20) 504만명, (1.21) 534만명, **(1.22, 설) 665만명**, (1.23) 548만명, (1.24) 397만명
- (귀성) 설 전일(1.21) 오전 출발(21.5%), (귀경) 설 다음날(1.23) 오후 출발(23.5%) 가장 최다
- (교통수단별 분담률) 승용차 91.7%, 버스 3.8%, 철도 3.0%, 항공 1.1%, 해운 0.4%

-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1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(전년 대비 23.9% 증가)되며, 이는 작년 12월 주말(428만대)보다 약 21% 증가한 수준이다.
-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.
 -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,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~대전 5시간, 서울~부산 8시간 40분, 서울~광주 7시간 40분, 서울~목포 8시간 30분, 서울~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되고,
 - 귀경은 대전~서울 4시간 15분, 부산~서울 8시간 15분, 광주~서울 6시간 35분, 목포~서울 6시간 55분, 강릉~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〈 코로나-19 위험 최소화 위해 교통시설 방역 강화 〉

- 우선,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, 고속도로 휴게소·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(703칸)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(약 2,119명)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.

-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(20개소) 및 도로전광판(VMS)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.
-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*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〈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〉

구분	고속도로 및 휴게소	운영기간	운영시간
총계	6개소		
경기(3개소)	경부선 안성휴(서울방향)	1.20(금)~1.25(수)	10:00~18:00
	중부선 이천휴(하남방향)	1.20(금)~1.25(수)	10:00~17:00
	서해안선 화성휴(서울방향)	1.20(금)~1.24(화)	11:00~17:00
전남(2개소)	호남선 백양사휴(순천방향)	1.21(토)~1.24(화)	10:00~17:00
	서해안선 함평천지휴(목포방향)		
경남(1개소)	남해선 진영휴(순천방향)	1.20(금)~1.26(목)	10:00~17:00

※ 이용객 편의(기상상황, 검사인원 등)를 고려하여 시간 탄력적(주·야간 연장 운영) 조정 가능

-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, 버스·연안여객선 터미널,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,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,
 - 전광판,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.
- 고속·시외버스, 철도,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,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 -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되,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·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,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.
- 또한,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중국*·홍콩·마카오발 국제선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·큐코드)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.

* 중국발 입국자 및 최근 7일내 중국 방문·체류자는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 의무

< 교통량 분산,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>

- 경부고속도로 동이~옥천(3.5km)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·개통되고,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(IC)~남장성 분기점(JCT)(9.7km) 구간이 신설·개통되며,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~용산 등 3개 구간(21.5km)이 신설·개통되고, 국도19호선 영동~보은 등 7개 구간(22.55km)이 임시 개통된다.
- 경부선 서울 요금소(TG)~안성 나들목(IC)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(1,208km)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(IC, 성남)~대전 나들목(IC, 광주) 등 국도 19개 구간(223.4km)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,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(고속도로 53개소 92개, 국도 43개소 137개)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.
-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(47개 구간, 255.9km)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(24개 구간, 59.6km)도 운영할 계획이다.
- 또한, 첨단 정보통신기술(ITS)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<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국가교통정보센터(www.its.go.kr),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.kr)
- (모바일) 국가교통정보센터, 고속도로교통정보
- (전광판) 고속도로 1,154대, 국도 1,601대, 옥외전광판 3,194대(지자체)
- (방 송) 교통예보관 방송(TV·라디오 등), 한국도로공사(EX) TV 등(45회/일방송)

-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(141km)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(26.9km) 상·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(금)부터 1월 24일(화)까지 버스전용차로제*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운영한다.

* (평시) 07:00~21:00 → (1.20~1.24) 07:00~다음날 01:00 (4시간 연장)

<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·귀경차량 편의 제공 >

-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**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**된다.
 - 면제대상은 1.21(토) 00시부터 1.24(화) 24시 사이에 **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**되며,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.
 - *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
- 서울·인천·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심야시간 철도·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**설 당일(1.22) 및 다음날(1.23) 시내버스(서울) 및 지하철(서울, 인천, 공항철도 등)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**한다.
 - 부산·광주·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(홈페이지)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.

< 고속버스·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>

-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, 철도, 항공기, 연안여객선을 **증편하여 운행할 계획**이다.
- **고속버스는 예비차량(공동운수협정차량 포함 204대)을 투입하여 평시보다 운행횟수를 일평균 612회(4,364회→4,976회) 늘려 총 14만석을 추가 공급**하고, **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**이다.

< 고속버스 예매 및 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고속버스(www.kobus.co.kr), 대중교통정보(www.tago.go.kr)
- (모바일 앱) 고속버스 모바일 / (안내전화) 1644-9030

< 시외버스 예매 및 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시외버스(txbus.t-money.co.kr, www.bustago.or.kr)
- (모바일 앱) 시외버스 모바일 / (안내전화) 1644-2992, 3070

○ **철도**는 총 130회(4,015회→4,145회)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4천석 증가된 **총 11만 8천석**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.

- 특히, KTX는 7만 7천석, SRT는 2만 3천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.

< 철도 예매 및 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한국철도공사(www.letskorail.com), (주)에스알(etk.srail.kr)
- (모바일 앱) 코레일톡, SRT-수서고속철도
- (안내전화) 1544-7788(한국철도공사), 1800-1472(주)에스알

○ **항공**은 국내선 총 101편(2,610편→2,711편)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3천석 증가된 **총 1만 5천석**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.

< 항공 관련 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인천국제공항공사(www.airport.kr), 한국공항공사(www.airport.co.kr)
- (모바일 앱) 인천공항 가이드, 스마트공항 가이드
- (안내전화) 1577-2600(인천국제공항공사), 1661-2626(한국공항공사)

○ **연안여객선**은 총 330회(3,681회→4,011회)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2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.

< 여객선 예매 및 정보 확인 >

- (인터넷) 가보고 싶은 섬(여객선 예약·예매, island.haewoon.co.kr)
- (모바일 앱) 가보고 싶은 섬 / (안내전화) 1544-1114(전국여객선 운항 안내)

<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>

□ 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·철도·항공·연안여객선 등 교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.

- (버스) 전국 7개소 터미널 점검, 수송장비 및 승객안전시설 점검(1.9~1.19)
- (도로) 우회도로 안내, 도로 살얼음주의 및 도로파임 등 정비상태 사전점검(1.2~1.19)
- (철도) 철도운영기관 등 대상 철도차량·시설 특별점검(1.10~1.13)
- (항공) 공항 필수시설(활주로, 항행안전시설 등) 특별 안전점검 시행(1.2~1.5)
- (연안여객선) 관계기관(해사안전감독관, 선박검사기관 등) 합동 특별점검('22.12.26~1.6)

- 고속·전세버스,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운수 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·취약지역·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.
-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·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 점검*을 실시한다.
 - * 5개 자동차제작사(현대·기아·지엠·르노·쌍용)의 직영·협력서비스센터 2,071개소(1.17. ~ 1.19. 3일간, 08:30~17:30)
-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, 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를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 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.
-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,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,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(50대)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과속·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.
-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(357개소), 구난차량(2,284대), 소방·닥터헬기(39대)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(488개소)하며,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대설·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.
 - 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, 결빙 취약 시간에 순찰을 강화(4→6회)하는 한편,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.

- 철도(KTX)는 적설량이 7cm~14cm인 경우 230km/h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 체계를 연계·구축하여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“전파력 강한 변이(BA.5, BN.1) 확산,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숙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꼭 실천해 줄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
- 특히, “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,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혹시라도 졸음이 발생하면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한 휴게소에서 쉬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국토부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정희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조은경 (044-201-3786)
<교통 안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구중 (044-20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혜리 (044-201-3867)
<버스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경헌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<통행료>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사무관	원일웅 (044-201-3887)
<휴게소방역> <제설>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철기 (044-201-3909)
		담당자	서기관	김민선 (044-201-3912)
<도로>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담당자	사무관	신종욱 (044-201-3911)
		책임자	팀 장	윤종빈 (044-201-4130)
<철도>	철도국 철도운영과	담당자	사무관	최용관 (044-201-4135)
	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<국내선>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1-4636)
	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<국제선>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	최진호 (044-201-4224)
	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<해수부> <연안여객선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담당자	사무관	신익승 (044-201-4211)
	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황신혜 (044-200-5733)

